

불 조 심

이 경 희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동 345-7〉

‘불조심’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들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들의 귀와 입과 머리에 젖어 있는 단어이다.

‘불조심’ 항상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위험한 상태에까지 도달하는 경험이나 직접 불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저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혀를 쫓쫓차며 TV에서 보고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런 끔찍한 일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즉 나와는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던 내가 세번씩이나 불 때문에 놀라고 나서는 가슴 두근거리는 병까지 생기게 되었다.

가정부가 없이 직접 모든 살림을 맡아 하기 때문에 불조심을 아주 철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격이 좀 소심한 탓으로 대문이나 마루문 같은 것도 잠가 놓고도 자리에 누웠다가 혹시나 하고 또 일어나 보고 불티가 남은 연탄재에 물을 잔

뜩 뿌려 놓고도 잠간 후에 또 나가 보고 또 나가 보는 나였지만, 그래도 소홀한 데가 있었던지 세번씩이나 불 때문에 놀라게 되었다.

한번은 어느 추운 겨울 일요일 아침이었다. 온가족이 전부 청소하고 아침 먹을 준비를 하느라 나는 부엌에다 석유 난로를 켜 놓았다.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데 추울것 같아서 반사경 난로를 미리 피워두고안방 청소를 하고 나서 부엌에 들어와 보니 난로 위에다 아빠가 뽀뽀얼어 붙은 구두약 통을 올려 놓고 그만 잊고 있었다.

내가 보았을 때 구두약이 완전히 물이 되어서 죽——넘쳐 흐르면서 거기에 난로의 불길이 불고 있지않겠는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구두약 통을 얼른 집어서 꺾 던져 버렸다. 순간 부엌 바닥에 구두약이 쏟아지면서 불이 확 불기 시작하였다. 부엌은 재래식을 고쳐서 마루만 놓고 그 위에 비니루를 깔았는데 그 비

니루가 구두약물과 함께 불이 번개처럼 타 들어갔다.

너무 놀라서 “여보! 여보!” 부르면서 우선 석유 곤로 불을 끄는 동안 부엌 바닥의 불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급한간에 현관에 깔아 두었던 새매트를 갖다가 불길을 덮어 버리고 마루 누르고 밟는 사이에 아빠는 방에서 이불을 갖고 나오고 있었다.

온 집안이 소동을 부리고 나서 나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한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구두약이 인화물질인 줄은 미처 모르고 석유 난로위에 올려 놓은 무식이나 석유난로 부터 끄고 차분히 처리해도 될 것을 서둘러 쏟아 버린 내 경솔함을 반성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올 겨울에는 석유난로 대신 부엌에다 연탄난로를 하나 놓았다.

밤먹을때 훈훈해서 좋고 더운 물을 부엌에서 쓸 수 있어 좋을 것 같고 또 석유난로 보다 연탄 난로가

은근하여 불에는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설치하였다.

그런데 초겨울 연탄 파동으로 연탄질이 너무 나빠서 꼭 하루 3장을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갈려면 꼭 밤에 자다 일어나서 불을 갈아야했기 때문에 나는 밤 11시쯤만 되면 밀불이 많아도 우선 먼저 갈아놓고 아주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불을 갈 때에는 밀불이 너무 좋아서 시뻘경계 이글이글 타고 있어서 연탄과 연탄이 딱 붙어서 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밖에서 칼로 잘라서 갈아야 하는 불편을 저녁마다 겪지만 새벽에 자다 일어나기 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날도 몹시 추운저녁 이었다.

아랫목에 잠깐 누웠다가 으시시한 채로 일어나 불을 갈려고 난로 뚜껑을 열었더니 여전히 이글거리며 타고 있었다.

으레 저녁마다 하던 버릇대로 접게로 접어서 부엌문 밖으로 들고나가 칼로 자를 려고 딱 불은 연탄두장을 한번에 들고 나가는 순간 그 시뻘경계 타고르던 밀 불이 부엌문 앞에 다 가기도 전에 부엌 바닥에 똑하고 떨어지지 않겠는가!

칼로 밀려고 해도 힘든 이 두 연탄이 이렇게 쉽게 똑 떨어지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그 순간 연탄이 탁 부서지면서 바닥에 깔아놓은 비니루가 여기 저기서 불이 붙기 시작하니 나는 한손엔 연탄 접게에 위에 있던 연탄을 쥐고 있는 터라 나가지도 들어 오지도 못한채 “아빠, 아빠”하고 소리를 지르고만 있으니 아랫목에 누워서 TV를 보던 아빠는 불이란건 생각도 하지않곤 저 사람이 왜 저리 소리 지르나

하고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 너무 급해서 쥐고 있던 연탄을 다시 난로에 갔다 넣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을 땐 부엌 바닥에 이미 불이 확 번졌을 때 였다. 그때야 아빠가 허둥지둥 나와 보고 급한 김에 지금까지 연탄 난로위에서 시글시글 끓고 있던 한 솥의 물을 확보했는데 물이 많고 너무 당황해서 물을 부으면서 아빠가 미끄러져 넘어졌으니 순간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지면서 “아이 뜨거워”하는데 금방, 아빠가 어떻게 되는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미끄러져 넘어진 아빠의 잔등을 잡아 당기면서 사람살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워낙 추운때라 집집이 문을 굳게 닫고있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한통의 뜨거운 물이 부엌 바닥에 쏟아지면서 타고있던 불과 합쳐져서 김과 연기가 삼시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 전등을 켜는데도 하도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아빠는 전등을 켜지 않은 줄 알고 불좀 키라고 아우성치는 암흑의 세계가 되었으며 비니루가 타는 독 가스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할 수도 없었다. 불길은 잡힌 것 같아서 마루문 방문을 다 열어 놓고 아빠를 밖으로 모시고 나왔을 땐 자고 있던 세 아이가 부들 부들 떨면서 서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놀랐고 어이없는 일인지 형용할 수조차 없었다.

재래식 부엌을 개량한 것이라 부엌 천장엔 다락을 그대로 두어서 나무로 되어 있으며 그 다락안엔 내가 십여년을 물한방울 헛되이 쓰지 않고 차곡 차곡 모은 온 재산이 들어 있었다.

불이 꺼지고 가스와 김이 빠지는 데도 1시간이나 걸리는 것 같았다.

부엌 바닥에 퍼 부은 물을 걸레로 짜내면서 보니 쟁크래까지 탔었다. 아주 순간적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타다니! 또 이정도의 비니루가 타는데 숨일수 없을 정도의 독가스가 그토록 많이 나왔단 말인가 온 집안이 비니루 탄 냄새로 가득해서 아희들은 기침하느라 야단이고 물바다가 된 부엌은 어수선하기만 했다. 너무나 놀라서 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떨리기만 했다. TV에서나, 신문에서나 읽던 불이 우리집에서도 일어날 뻔했다니,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 그토록 무서웠으니 정말 불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암흑, 그 가스, 그 열기속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을 생각하니, 고마움이 절로 솟았다.

부엌마루가 발이 시러서 갈아 놓은 비닐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다니 당장 걸어 치워야지 하면서 그 겨울을 지냈다.

그 후론 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불조심을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물론 아무리 딱 불은 연탄이라도 그 밑에 꼭 그릇을 한 손으로 받쳐 들고 다니고 작은 불씨라도 떨어지지 않으나 확인하고서도 연탄을 갈고난 후 약 30분후에 다시 부엌에 나와서 흑시 떠러진 불씨로 타고있는 곳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연탄난로를 빼었으니 부엌에는 취사용으로 쓰는 석유콘로 하나 밖에 없었다.

그 석유콘로야 내가 켜다 꺾다하며 자리가 고정되었으니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용하던중 하루는 아이들과 봄놀이를 나가게 되었다.

저녁때야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 들어오니 부엌이 후끈 후끈하고 석유 냄새가 나고 있었다. 곤로를 들여다 보니 언제부터 켜져있었는지 불이 붙어있었다. 곤로의 소화장치로는 분명히 끈 상태인데 불은 타고 있으니 이게 웬말인가. 곤로통을 들고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아직 이렇게 꺼지지 않을때가 없었는데 무슨 조화일까, 아무리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기에 정신없이 곤로의 이것 저것을 만져 보니까 석유 넣는 곳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 낮에 석유를 넣고 깜박 잊고 그 곳의 뚜껑을 덮지 않았었다. 석유 넣는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심지가 계속타는 것인가 보다.

석유곤로를 10여년을 사용했어도 처음 당하는 일이다. 얼른 구멍을 닫고 입으로 불었더니 싹 꺼진다. 이마엔 구슬땀이 솟았고 현기증이

난다. 점심식사때 시어머님께서 키쳤다가 끄셨다는 곤로가 아무도 없는 빈 부엌에서 계속타고 있었으니 그 석유곤로 위에 아무것도 없기가 천만 다행이지 주전자라도 있으면 물이 다 줄고 까맣게 타서 손잡이 까지 타 들어가서 다른데로 인화되었으면 천장이라고 낮은 다락, 밀바닥은 아직도 견어 치우지 않은 비닐들이 주인없는 집에서 얼마나 잘 타겠는가? 곤로위에 아무 것도 없었지만 만일 그 위로 찬장이나 다른 높은 곳에서 종이라도 한장 떨어져서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놀랄일이었다. 위에서 일어난 두가지 사건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황은되었지만 침이 텅빈 상태로 끈 줄알랐던 석유곤로가 꺼지지 않아서 불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다.

10여년을 악착같이 모은 내 온갖 알뜰한 재산이 나 없는 사이에 몽땅 재로 변하게 될 뻔했으니 그 다음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토록 불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무식과 당황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석유 곤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심지의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큰 잘못이고 또 석유를 넣고 꼭 잠가 두어야 할 뚜껑을 닫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있으면 설사 그랬다손치더라도 석유곤로의 소화기만을 돌려 놓았다고 불이 꺼진것도 확인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불에 대한 조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를 반성하며 앞으로의 우리 집 불조심에 만전을 기하여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부인 나부터 주의에 주의를 다하고 또 다할 것을 결심하였다.

